

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57차 EDCF
기금운용위원회 모두발언(4.13일)

- 지금부터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겸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

1 대외경제장관회의

-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외환경은 보호무역 확산과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전례없이 급변하고 있습니다.
 - 특히,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개시,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대외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.
 - 변화의 바람이 거셀때 누군가는 장벽을 쌓지만, 누군가는 풍차를 세운다는 격언이 있습니다. 정부는 대외리스크 대응에 필요한 '장벽'을 쌓는 한편, 통상 전략과 개발금융 등 중장기 대응 기반인 '풍차'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습니다.

[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경과 및 향후 대응계획]

- 먼저, 美무역법 301조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.
 - 정부는 미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.
 - 미측 지적과 달리 과잉생산은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,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겠습니다.
 - 아울러, 우리나라는 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ILO 협약 및 국내법 등 확고한 기반을 두고 있으며, 이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.

[개발금융 추진방안]

- 다음으로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"한국형 개발금융"을 추진하겠습니다.
 - 그간 EDCF 등 유상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왔으나, ODA 예산을 지속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
 - 이에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들과 같이 시장 차입, 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대출, 보증·보험, 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"새로운 개발금융"을 도입하고자 합니다.
- 올해 상반기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하여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며,
 - 이와 동시에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.

[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新통상협정 추진전략]

-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에 그치지 않고,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수출 성장세를 뒷받침하겠습니다.
 -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도 우리 수출은 지난 3월 86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48.3% 증가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.
 - 지난 20년간 구축해온 FTA 네트워크가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결과입니다.
 - 향후 FTA 지도를 신남방·중남미·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촘촘히 확대하여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겠습니다.
 - 전략적으로도 FTA 모델을 유연화하여 디지털·그린·공급망 등 모듈형 통상협정, 산업·투자연계형 협정 등 통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.

[중동전쟁 주요국 대응사례 및 시사점]

-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을 해외파견 재경관 등을 통해 점검하였습니다.
 - 대다수의 국가들이 ①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②가격 안정화 정책, ③수급 안정화 정책, ④국제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,
 - 특히,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*하고 있습니다.
- * 예: (日) 보조금 연계하여 휘발유 가격 상한, (中) 휘발유·경유 가격 인상폭 조정 등
- 우리나라도 선제적으로 가격·수급·보조금·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중에 있습니다.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.

- * ①(대응체계) 대통령 주재 '비상경제점검회의' 개최
- ②(가격 안정화)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, 유류세 인하, 취약계층 지원 등
- ③(수급 안정화) 수입 다변화, 비축유 방출,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에너지 절약
- ④(국제협력) 美 재무부 협의를 통해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, 주요국과 양·다자협력 지속

2 EDCF 기금운용위원회

- 제157차 대외경제협력기금(EDCF) 운용위원회 안건은 2026~2028년간 EDCF 중기운용방향입니다.

['26~'28년 EDCF 중기운용방향]

- 최근의 대내외 ODA 환경을 살펴보면
 - 주요 공여국들은 ODA와 경제·안보 이익간 연계를 강화하면서, 전반적으로는 개발재원 공급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
 - 한편, 대내적으로는 다양한 ODA 수단의 통합적 운용과 국민에 대한 신뢰 확보 등 ODA의 질적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

- 이러한 대내외 ODA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정부는 향후 3년간 EDCF 운용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.
 - '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,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발전'에 대한 기여'를 비전으로 수립하고
 -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사업 승인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.
- 그리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분야에 걸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.
 - ① 먼저, 우리 산업과 기업이 강점을 보유하고 개도국의 지원 수요도 높은 AI·디지털, 문화, 그린, 공급망을 중점분야로 설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.
 - ② 다음으로, 작년 12월에 발표한 투명성·공정성 제고방안을 본격 시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사업 품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.
 - ③ 이와 더불어, 여러 무상 ODA 수단과 EDCF를 통합적으로 기획·운용하여, 개발효과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.
 - ④ 마지막으로,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승인 취소 등으로 EDCF 사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
 -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활용한 이익 환류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의 수출 생태계 강화에도 동참하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